

2 0 1 3
SPRING
V o l . 3 4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사의 따뜻한 이야기

원익사



自由
+
疏通
+
幸福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인의 따뜻한 이야기

COVERSTORY



04 **Cover story**
기업문화 핵심가치
행복

08 **Wonik News**
원익가족소식
원익인 뉴스

18 **Special Edition**
세미콘코리아
2013

CONTENTS

COVER STORY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 04 Cover story**
기업문화 핵심가치 - 행복
- 08 Wonik News**
원익가족소식
- 18 Special Edition**
세미콘코리아 2013

- 24 CEO Column**
(주)원익머트리얼즈
이건중 사장
- 28 Discovery of Baduk**
제8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대국 결과
- 30 Wonik Business**
(주)원익
마인드레이 초음파기기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눈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34 Wonik Dream Team
(주)원익큐엔씨 품질관리팀
조봉현 팀장과 팀원들

38 Employee Training
(주)원익아이피에스
승진자 교육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42 Never Ending Change
W. L. Gore & Associates
고어사의 행복한 경영철학

46 Zoom In
(주)원익 탁구 & 문화체험 동호회
춘계탁구대회

L I F E S T O R Y



50 Economy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세계 경제

52 Musical
브로드웨이 42번가

53 Exhibition
미장센(MISE-EN-SCENE)
연출된 장면들

54 Health
코어운동으로 내 척추를 보호하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행복한 브라질 기업, SEM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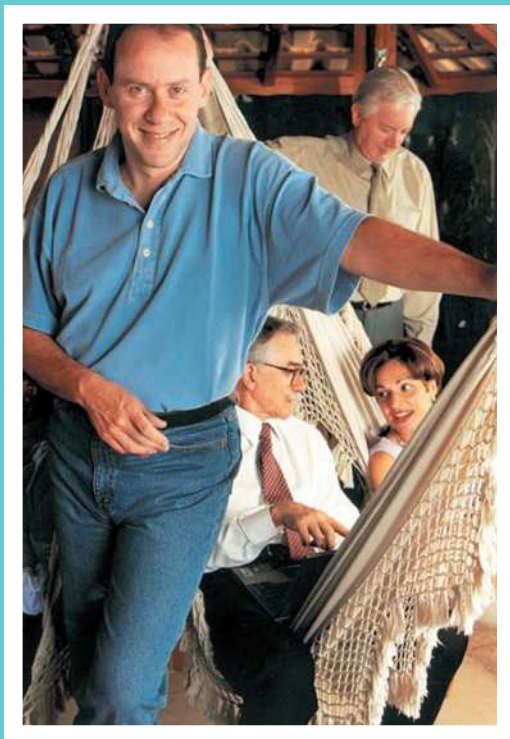
브라질 소재의 섴코(Semco)는 일주일 가운데 일하는 날짜와 출퇴근 시간, 장소까지 직원들에게 알아서 결정하도록 맡기는 회사로 유명하다. 주말이라도 날씨가 으스스하다면 놀러가는 대신 일을 하고, 맑게 갠 평일에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꿈같은 회사처럼 들리지만 처음에는 반발도 만만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1980년대 중반 섴코에서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내부 반발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했다. 위계질서가 흐트러지고 조직의 응집력을 저해하는 방침에 사람들은 반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우려에 섴코의 CEO '리카르도 세믈러(Ricardo Semler)'는 이 같은 걱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숙한 성인이라면 출근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업무를 망기한 채 마음 편하게 놀 수 없고,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일하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고 일축했다.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 했지만 섴코는 연간 매출은 1994년 3,500만 달러에서 2003년 2억 1,200만 달러로 늘어났고 연간 성장률은 40%를 기록했다. 그 뒤로도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3,000명의 종업원이 연간 2억 달러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면서도 공식적인 조직구조나 사업계획, 기업전략, 장기예산안 등이 존재하지 않고 CEO도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사장도 임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덕분에 지금은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한 직장,
섴코

섴코 CEO '리카르도 세믈러'는 매뉴얼이나 절차, 정책 등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행복





한 순간을 만들어갈 때 행복을 느끼고 그 순간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인지 '행복한' 썸코의 이직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고는 거의 없고 2000년, 2001년에 3,000명에 가까운 직원들 중 단 세 사람만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정도로 썸코는 만족스러운 직장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썸코의 직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확신

이 설 때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고 가장 적합한 일을 찾는다.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적합한 곳을 찾아 옮겨준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면 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원의 적성과 자율성을 배려함으로써 썸코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직원 스스로의 창의력과 능력을 올리고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갈 때 그 순간이 진정한 성공

나아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썬코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들도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사후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썬코 리카르도 세를러의 말처럼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임을 모두가 잘 알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일터를 꿈꾸는 원익의 기업가치 “행복”

지난 30주년 이후 ‘새로운 30년 새출발’을 알린 원익은 신뢰, 공정, 투명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와 소통, 행복의 새로운 30년 기업 가치를 선언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업문화 활성화 목표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발전해 간다면 ‘행복한 원익’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원익 이용환 회장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에 중요성을 임직원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도전하는 것만이 빠르게 흘러가는 경쟁의 흐름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무엇보다도 ‘행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행동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임직원 모두가 몸소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익과 계열사 임직원 모두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단계를 찬찬히 밟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와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된 ‘행복한 직장’에서 일할 때 직원들은 주인 의식 갖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나아가 업무의 능률은 물론 창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불필요한 업무단계를 개선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남은 시간을 개인 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복지 시설과 휴식 공간, 체육 시설 등을 도입하는 등 원익인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직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를 늘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이워가기 위한 환경조성에도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양적완화 등 수출환경의 악화 속에 원익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변화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30년 역사를 기록해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원익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속 초우량 기업, 행복한 일터 원익’의 꿈을 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원익

(주)후너스, 원익 계열사에 편입

원익이 후너스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지난 4월 2일 공식적으로 원익 계열사에 편입되었다.

화학제품 및 전자재 등 제조·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후너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700만주(약 235억여원)를 발행, 원익에 배정기로 의결했으며, 지난 4월 2일 유상증자를 위한 납입을 완료하면서 후너스 지분의 총 25.55%를 획득하게 되었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후너스는 자동차·전기전자·석유화학·건축·섬유 등 국내 산업 전반에 필수 원료 및 소재로 활용되는 수 천 가지의 화학제품 수입 유통과 제조를 핵심사업으로 영위하는 매출 2,000억원 규모의 우량 중견기업이다. 이외에도 국내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아스팔트 첨가제 등 전자재사업, HP의 디지털 인쇄기인 '인디고'를 유통 판매하는 IT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14개 화학·전자재·IT제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독점 공급권 확보 등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2%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 바이오 신약개발회사인 온콜리스바이오파마 지분 인수, 2012년에는 의료용 전문화학제품 기업인 후너스바이오 인수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온콜리스는 2010년 12월 글로벌 제약회사인 BMS에 2억8600만달러 규모의 HIV치료제 기술 수출에 성공한 회사이며, 후너스는 앞으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 기업가치 향상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주)원익

제 30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원익은 2013년 3월 29일(금) 9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실적 승인과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에 조주영 순천향대학교병원교수가 재선임되었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차동익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고객을 향한 끝없는 열정, 내실있고, 활기가 넘치는 경영을 통하여 주주여러분께 경영목표 달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내과 및 산부인과 4D 초음파기기 마인드레이 DC-8 출시

초음파 전문 브랜드 마인드레이 세번째 제품도 국내에서 통할지 관심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원익은 진단초음파 의료기기인 마인드레이 (Mindray Medical) DC-8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인드레이 DC-8은 프리미엄 초음파장비 기술을 적용하여 심장, 복부, 근골격, 유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접이식 19인치 고화질 LCD 모니터와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한 제어판 및 터치패널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다.

특히 산부인과에 최적화한 3차원 입체영상기술은 태아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형여부, 태아가 자리잡고 있는 위치와 움직임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확인함으로써 태아기형 등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태아의 심장박동 및 뇌 등 해부학적인 정보들의 처리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측정값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해상도 높은 접이식 19인치 LCD 모니터와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한 제어판



및 터치패널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다. 마인드레이는 초음파 전문 의료기기 브랜드로 국내 의료환경에 맞게 제품 라인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보급형 DC-3로 국내에 첫 진출한 이후 DC-T6에 이어 DC-8까지 라인업을 점차 확대하고 고급화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DC-8은 내과 및 산부인과에 최적화된 초음파 기기로 기존 초음파기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익 메디칼사업본부 이장진 본부장은 “점점 고화질 영상과 고기능을 구현한 초음파기기들이 출현하면서 산부인과 검사와 진단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동일사양에서 기능적인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준종합병원 및 건진센터들의 장비도입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H+양지병원 펜탁스 내시경 도입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장비 구축

첨단EPK-i 전자내시경 등 대학병원 급 의료장비 구축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원익은 대학병원급으로 변모하고 있는 H+양지병원에 첨단 전자내시경 EPK-i를 비롯한 펜탁스 내시경 장비 일체를 독점 공급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H+양지병원에 공급한 펜탁스 내시경 장비는 첨단 전자내시경 EPK-i 8대를 포함하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내시경, 기관지내시경 등 내시경 장비 40여 대에 이른다. 펜탁스 내시경 장비들이 풀패키지로 독점 공급된 것은 장비성능과 AS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펜탁스 EPK-i 전자내시경은 최근 대학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성능을 지닌 첨단 내시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125만 화소의 고화질을 구현하였고, 몸속기관 및 세포의 원천 색에 가깝게 색 변환이 가능한 특수영상 시스템인 아이스캔(i-scan) 기능을 내장하여 병변을 돋보이도록 하여 진단의 정확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H+양지병원은 신축 및 건물전체 리모델링 등 시설확충을 통해 서남권 거점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첨단시설 및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초대 갑상선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종순 의료원장이 핵의학센터장을 맡고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역임한 김성현 인터벤션센터장 등 대학병원 교수출신 의료진을 대거 영입해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을 역임한 경희대학교 장린 교수를 소화기병센터장으로 초빙하여 대학병원급 소화기병센터 진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최근에는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두각

을 보이고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교수진들과 ESD 내시경 기술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풍부한 경험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수준높은 대학병원 급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남권의 거점병원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익큐엔씨

해외 법인간 기술 교류 실시



㈜원익큐엔씨는 해외 법인과 Global Synergy효과 창출을 위하여 매년 해외법인과 실시하고 있는 교류 활동을 한국과 대만(WITQ)간의 기술 격차의 줄이기 위해 전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WITQ의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취약기술부분 기술인력 단기과견근무 지원’, ‘대만인력 본사 견습 프로그램 활용’, ‘대만법인 내 Quartz 조립 전문가 중점 양성’, ‘단기훈련 및 장기개발지원 등의 관리 개발’을 목표로 지난 2103년 1월부터 그 세부계획을 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교류에 들어갔다.

지원 및 교류분야는 Machining(MCT, CNC, SLOTTING), Bench(RING BOAT, PEDESTAL, MOULD), Lathe(Process/Reactor Tube)로 나누어 본사연수 또는 대만과견 교육의 Rotation으로 추진 진행중에 있으며, 그 1차 기술교류로써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5명의 대만직원이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4월 8일부터 14일까지 2차 방문하여 본사 연수에 들어갔다. 이후 5월까지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교류활동을 통해 WITQ 부문별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일괄되고 규칙적인 업무절차와 정책이 구축되고 최상의 기술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품질안정성 확보 등의 의식개선 또한 이루어져, 사업장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수립된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각 사업장의 장점 및 지역별 시장의 특성에 따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강사 초빙 직무 교육 실시

(주)원익큐엔씨에서는 효율적인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실험계획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본부 소속의 책임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원익큐엔씨 내에서 실시되었으며, 품질/개발 직군에서 30여 명이 참가하여 ‘실험계획법 종합실무’와 ‘미니탭 활용 실험계획법’ 및 ‘다구찌 실무’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통계적 기초 이론을 처음 접하는 일부 직원들이 실험의 계획과 분석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통계학을 일부 접하여 왔던 직원에게는 실험계획법의 기본 개념과 그 분석방법을 더욱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교적 짧은 강의시간으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설명에서 중요한 것만 간추리고 사례를 MINITAB을 통하여 분석한 후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후 해당 업무에서도 올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구미시의회 유독물 취급우수업체 방문

지난 2013년 4월 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로 등록된 구미시 지역업체중 당사를 선정하여 원익큐엔씨 세라믹스사업부(황상동 소재)를 방문하여, 유독물 취급업체의 관리실태와 현장견학을 통해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유독물 취급부주의 사고에 대해,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철저한 예방관리를 가하고 있는 기업을 구미시청 환경위생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되었으며, 현장 방문시 구미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과 환경위생과 이인재과장, 김동진 계장 등 의회, 시청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방문시 당사의 안정화된 생산공정과 철저한 환경안전의 관리실태에 감사를 표한 후, 지속적인 관리 당부와 더불어 시민들이 더 이상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독물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입을 모았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 2013년 경영전략 워크샵 실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2월 20일(수), 용인 소재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파트장급 이상 73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경영전략 워크샵을 실시했다. 금번 경영전략 워크샵은 '당사는 올해 turning point에 직면해 있다, 위기 극복 시나리오별 survival plan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대표이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날씨는 을씨년스러웠지만 토론의 열기만큼은 뜨거웠던 금번 워크샵은본부별 총 6개의 분임조나누어 아래와 같이 총 3가지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첫째, 2013년 매출 목표 극대화

둘째, 미래준비 전략 (기술선정 우선순위 및 확보방안)

셋째, 사업부별 혁신과제

이번 워크샵은 외부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와 위협으로부터 각 사업부별 극복방안 및 매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새로운 사업 Momentum의 궤도 진입을 통한 지속 성장 추진을 위한 의견을 모을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경영전략에서 개진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의 반영을 통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원익아이피에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지난 3월 25일 진위 본사에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2기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일부변경, 이사의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등이 있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 처리되었다.



기분까지 좋아지는 봄맞이 대청소 실시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지난 3월 8일 전임직원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청소를 시작하는 안내방송이 울리자 전 직원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건물의 모든 창문은 연후, 손걸레와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무실에 쌓아놓은 서류와 물건들, 책상과 서랍에서 정리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잡동사니들은 이 날의 청소 대상이었다. 닦고, 버리고, 치우고, 모두들 즐거운 마음, 새롭게 201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간의 묵은 때를 정리하였다.



회사주변 길거리 청소에는 진위면사무소의 지원도 있었다. 길가의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말에 면사무소에서는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구성원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내어 회사 앞 길가부터 야외 휴게공간 구석구석의 쓰레기를 모두 모아 치웠다.

기획관리본부장 이근우 전무는 “청소를 통해 깨끗한 사무환경 뿐 아니라 구성원들과 협동을 통해 차분한 마음과 행복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을 말했다.

(주)WONIK IPS, STRONG 학습조직 전산 SYSTEM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학습, 훈련, 연구활동’의 목적으로 2012년 6월부터 실시한 (주)원익아이피에스 학습조직 활동이,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시행 첫 해 62개의 학습조직이 구성되어, 각 조직의 성격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로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진 업무 Know-how를 공유했다.

시행 2년차인 2013년 올해, 팀별 학습조직 운영 효율화 및 지식 DB화 활용 제고의 목적으로 학습조직 전산 system을 개발하였다. 작년의 경우, 각 학습조직은 활동 후 결과물을 그룹웨어에 업로드하여, 부서 인원 또는 타 부서와 공유했다. 하지만 그룹웨어 게시판 상에 업로드 함에 따라 자료 공유 및 검색시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파트에서는 학습조직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학습조직 전산 system은 기존 그룹웨어 게시판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학습조직 리더 및 조직원 관리가 전산상으로 가능하다. (신규 가입 또는 학습조직 전환)

둘째, 학습조직별 활동 집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셋째, 자료에 대한 보안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파트, 팀, 본부 공개 설정 가능)

넷째, 활동 후 각 학습조직의 자료들에 대한 DB화 가능하며, 검색이 용이하다.

새롭게 갖춘 학습조직 전산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더 많은 know-how와 지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익머트리얼즈

제 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2013년 3월26일 오창 본사 3층 강당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서의 보고사항으로는 2012년 영업실적 및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였고, 주요안건으로는 사내이사 (김광호부사장), 상근감사(이병훈 변호사) 선임 및,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지난 2012년5월30일 이사회 결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승인) 등이 있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처리되었다.



입학자녀 축하 선물 지급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진중 대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 14명, 중학교 입학자녀 6명, 대학교 입학자녀 2명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이벤트는 ‘가족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과 행복’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올해 초중고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 선물을 전달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재직자 졸업 축하 간담회

이진중 대표는 올해 2월 졸업을 맞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졸업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을 받게 된 직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졸업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서 원익머트리얼즈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기뻐했다.

이진중 대표는 행복 경영,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 조직의 융합을 도모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게 되면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종합개발(주)

거제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 분양



신원종합개발(주)은 거제시청 옆 고현성과 계룡산 품에 안긴 공원같은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를 2013년 6월말(예정)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을 개시한다. 이어 사업현장내에 단독형 샘플하우스를 신축 오픈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거제 신원 아침도시는 외국인 전용 렌탈하우스에 포커스를 맞춰 설계하였고, 팻네임은 '헤리티지'로 하여 고품격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신원종합개발에서는 거제 신원아침도시 TFT를 구성하여 행정, 광고 및 마케팅, 설계 및 시공 등 각 파트별로 업무분담을 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오피스 실현 정착화

신원종합개발(주)은 2011년부터 침체되어 있는 건설시장에서 생존키 위한 내부 구조혁신 후 환경적 변화에 대응코자 사무환경 개선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clean office, clean mind"라는 슬로건을 걸고, 월 2회 'clean day'를 꾸준히 실시해 온 결과, 'clean day'가 정착화되어 올해부터는 월 1회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clean day'를 실시하고 있다.



'clean day'에서는 문서보안 강화, 업무집중도 향상, 사무용품 절약, 문서관리 표준화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부 문서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전자문서고 적용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클린오피스 정착을 기반으로 하여 '집중근무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소통, 행복’을 위한 ‘신원인 Hof day 실시’

신원종합개발(주)은 2013년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도입하여 시작한 ‘신원인 호프데이’를 지난 2월 실시하였다.

임직원 및 조직간 벽을 허물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임직원간의 소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한 호프데이에



서는 각종 퀴즈 및 게임 프로그램등을 가미하여 다 같이 격려하고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파이팅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적인 호프데이의 정착을 통하여 직원 상하간 및 조직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Medical · IT Convergence 세미나 및 소모임 진행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외부 강사(서울대 의과대학 이학중 교수)를 초빙하여 Medical · IT Convergence라는 주제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에서 이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의 IT 도입 과정과 도입 후 효과, 기존 의료시스템과 IT 기술의 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을 강연하였으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무기록전산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PMS & IMS(Practice Management System &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병원내 관리 솔루션) 등 Medical-IT Convergence의 최신 사례와 기술 트렌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세미나 후에는 상반기 소모임으로 신하균 주연의 ‘런닝맨’을 이용성 사장을 비롯하여, 전무, 팀장, 사원 등 직원 12명이 함께 모여 영화 관람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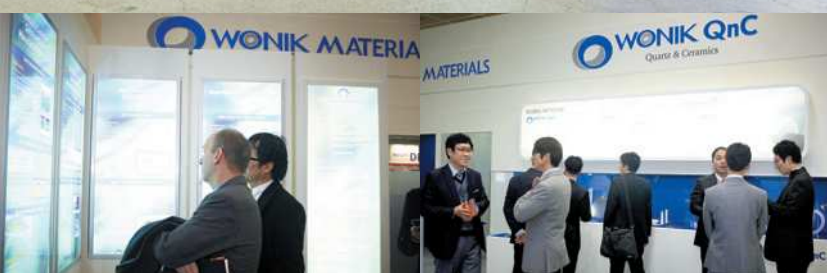
원익투자파트너스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직원과 이용성 사장이 나란히 앉아 팝콘과 콜라를 함께 먹으며 업무의 작은 일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관람 후에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감상평과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 직장선배들이 들려주는 업무 knowhow 등을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작은 소모임을 통하여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의 취미나 관심사 등에 대하여 알아가는 모임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유수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원익의 기술력이 돋보였다



국내 최대의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전시회 '세미콘 (SEMICON) 코리아'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미콘코리아에는 20개국 450여 기업, 1605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미콘 코리아는 방문객과 바이어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강국,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세미콘코리아 2013은 반도체장비재료산업의 첨단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 외에도 반도체공정별 최신 기술과 이슈를 소개하는 SEMI 기술심포지엄, 향후 기술발전과 미래시장을 조망하는 기술포럼, 반도체 시장분석과 전망을 다루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반도체산업의 주요 규격인 국제SEMI 표준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장비재료산업의 전 분야를 총망라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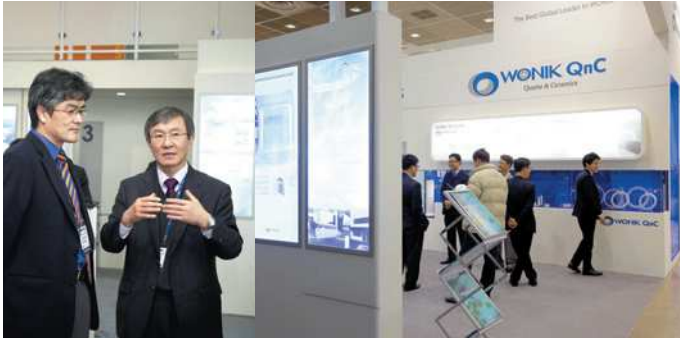
원익은 3개 계열사 (주)원익큐엔씨,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가 행사에 참가해 제품 전시와 상담 및 홍보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시회장 입구에 자리를 잡은 원익은 2층 규모의 부스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계열사를 한자리에 모아 효율적인 부스활용을 보여주었다.

원익을 상징하는 블루와 화이트 컬러로 부스를 꾸며 세련된 이미지와 상징성을 동시에 시각화했고, 각 계열사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구성했다. 고객과의 만남 위한 다수의 회의실도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첫날에는 이용한 회장과 이문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였다. 삼성, 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들은 물론 LCD/LED 관련 회사와 장비제조사, Gas Plant 등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불황 속에서도 빛나는 기술력을 짐작하게 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전문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답게 생산 장비별로 짜임새 있는 부스 구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크게 ‘Semiconductor’, ‘Solar & Display’, ‘TGS(Total Gas Solution)’로 세 분류로 나누어 소개한 생산 장비들은 점진적이고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PECVD 대표장비인 MAHA MP를 비롯해, DB21™ (ALD), AKRA™ (Metal CVD) 등 생산 장비의 종류와 성능 및 특징을 자세히 소개했고 최근에는 차세대 메모리인 3D 플래시 메모리 공정 개발에 대해 소개하며 많은 관련 업체의 방문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TGS' 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Gas Purifier, Gas Supply System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 제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고, 'Solar & Display' 군에서도 태양전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Solar Cell Dry Etcher' 와 'FPD Dry Etcher' 를 자세히 소개했다. 'TFT-LCD Panel' 제조의 핵심장비인 'FPD Dry Etcher' 는 현재 대면적 40인치 이상의 8세대 LCD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AM-OLED/LTPS 시장을 겨냥한 'AMOLED Evaporator' 도 함께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00mm 웨이퍼 양산시스템을 갖추면서 퀴즈 및 세라믹 분야에서 이미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기술 및 품질을 인정받아온 (주)원익큐엔씨는 Tube, Boat, Cap, Bath, Accessory, Etch Part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성 부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반도체 공정에 부응하는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 부품들을 전시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뽐냈다. 국산화 기술로 만들어낸 신소재 부품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된 세정사업은 빠른 시간동안 성장하며 고객사에게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점차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원익큐엔씨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는 물론 세계 1위를 위한 성장의 한걸음도 잊지 않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LED, FPD 에 사용되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와 플랜트들을 종류와 규모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생산과정과 설비를 알기 쉽게 그림과 도표화하여 관람객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향후 생산시설 추가·확장 계획을 알리고 새로운 특수가스를 발굴하는 등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생산시설과 과정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2013 세미콘코리아에서는 오프닝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이그제큐티브 포럼(Executive Forum)에서는 전 세계 반도체산업의 최대 화두로 손꼽히는 450mm 웨이퍼 전환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 국내 최초로 공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첫 선을 보

인 해외장비회사와 국내 부품회사와의 OEM 구매상담회는 실질적인 판로지원의 기회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국내 부품업체를 지원,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SEMI 조현대 사장은 “올해 세미콘코리아는 세계적인 경기불

황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0개 출품업체, 1605개의 부스를 기록해, 다시금 한국 반도체산업의 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며 “특히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 다수가 적극적인 상담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아 전시에 참여한 출품업체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미콘코리아는 매년 진화하고 있다. 내년 세미콘코리아 역시 산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한국반도체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의 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최신공정기술에 관한 학술세미나, 매출로 연계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관건인 SEMI 표준에 관한 다양한 행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1 | 自由

24 **CEO Column**
(주)원익머트리얼즈
이건중 사장



28 **Discovery of Baduk**
제8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대국 결과



30 **Wonik Business**
(주)원익
마인드레이 초음파기기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기업의 비전(Vision)은

CEO가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원이 주체적으로 나서야합니다.

행복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원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기업은

소통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변화로 이끄는 힘 행복한 기업, 소통의 기업문화

존중과 배려의 경청으로 소통은 시작된다

이건중 사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평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야기를 하기보단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는 직원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직원들 스스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는 가르치고 알리기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이는 곧 긍정적인 기업 변화의 바람을 가져온다고 그는 믿고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소통은 시작됩니다. 불만, 근심 등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를 느끼고 영겼던 마

음들이 풀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굳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해가는 등 이 모두가 경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변화의 힘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경청에 대한 철학은 그간의 그가 쌓아온 업무경험은 물론 독서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에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이 사장은 지난 20년간 일주일에 2권 가량의 독서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동안 읽어온 책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책을 문자 주저 없이 「경청」, 「배려」, 「마중물」 세권을 이야기한다. 이 책들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직원들에게도 읽어보길 권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중 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는 말처럼 사원들의 마음을 열고 얻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경청이 선행된다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며 웃음 지었다. ‘책에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 속에 그의 경영철학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상동몽 (異床同夢)의 회사를 꿈꾼다

이건중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이상동몽(異床同夢)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지만 이 사장의 설명은 명쾌했다.

“동상이몽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판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합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동상이몽은 그 반대입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다는 말입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각자 다른 직급,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꿈꾸는 것이 같다면 결국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몽(異床同夢)인 것이죠.”

또한 이건중 사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원들 스스로 성장해가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때 사원들은 훨씬 적극적



이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업무의 창조성도 드러난다고 그는 믿고 있다. 때문에 CEO와 회사는 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 이건중 사장의 생각이다.

“어릴 때 펌프로 물을 퍼올릴 때 그냥 펌프질만 하면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펌프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잘 납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회사가 일일이 지시하고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사원들 스스로가 세운 계획에 회사가 마중물이 된다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사장은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으면 생각의 여유가 없고 그만큼 창의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의 가치에 맞게 핵심적인 사안만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투자하는 것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올 긍정의 바람을 즐기자

이건중 사장은 작은 변화를 위한 시작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원들에게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생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이 사장이 2012년 (주)원익머트리얼즈 부사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고민하자’ 등 6가지 항목의 이야기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간은 누구나 창조적입니다’ 라는 문구다. 이는 무한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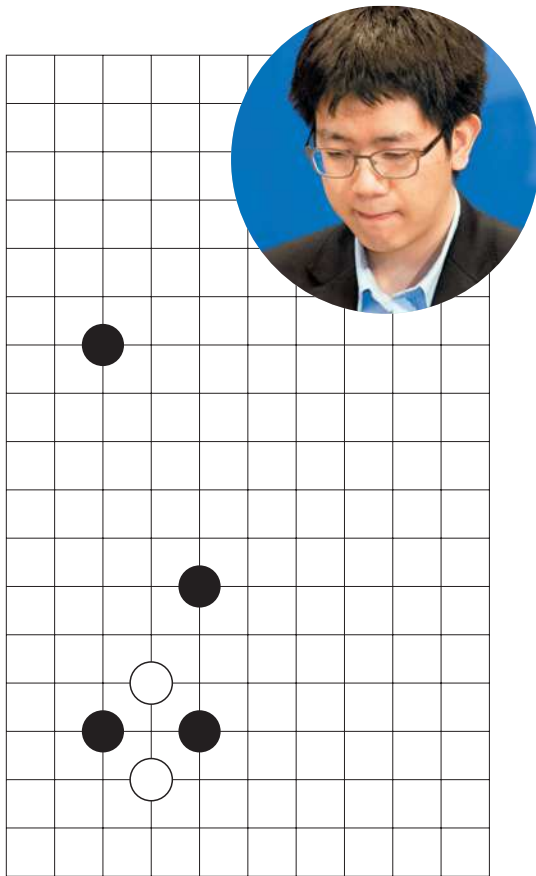
와 인간적인 배려가 함께 어우러진 이진중 사장만의 경영 철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떤 프로젝트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이 작은 시도가 가져올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한 번 해보자’는 자세로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난 20년 삼성전자에서 자신의 임원 승진을 축하하며 직원들이 종이학 1000마리와 러브레터를 담아 선물한 유리 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이진중 사장.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선물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진중 사장은 행복한 (주)원익머트리얼즈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제8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대국 결과

강동윤 9단, 박영훈 꺾고 원익배 우승



강동윤 9단이 원익배 십단전 첫 우승에 성공했다. 아울러 약 4년만에 또 하나의 타이틀을 추가했다.

4월 2일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8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3번기 제2국에서 강동윤 9단이 박영훈 9단에게 19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0으로 십단 타이틀을 획득했다. 강9단은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결승 제1국에서도 255수 만에 흑 불계승하며 기선을 제압했었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강동윤 9단은 대회 첫 우승과 함께 3년 9개월 만에 무관 탈출에도 성공했다. 강9단은 지난 2009년 제22회 후지쓰배 세계바둑대회 정상에 오른 이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해 왔다. 이번 십단 타이틀은 자신의 일곱 번째 타이틀이다.





결승2국 승리로 강동윤 9단은 박영훈 9단과의 상대전적에서도 8승 7패로 앞서 나가게 됐다. 최근 전적에서는 5연패 후 내리 3연승 중이다.

강9단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후지쓰배 우승 이후 정말 오랜만에 정상을 밟는 것 같다”면서 “결승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바둑을 두자고 각오를 다졌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반면 올해 14연승으로 쾌조의 출발을 알렸던 박영훈 9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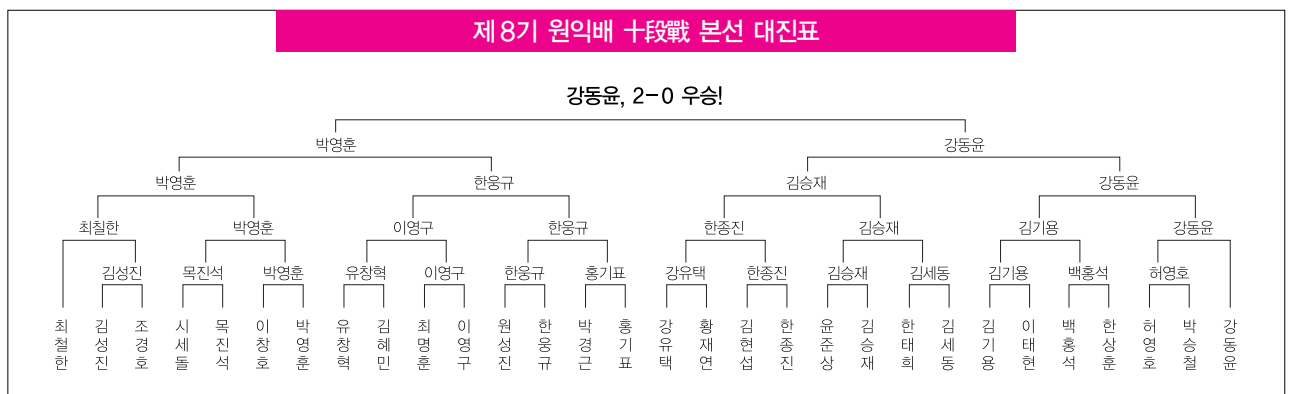
접전을 벌였던 결승1국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리 2연패하며 1기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강동윤 9단은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뒤집으며 예상 밖의 2-0 완봉승을 이끌어냈다.

결승3번기가 열리기 전까지 강9단은 총 타이틀 획득 수(6대 18)를 비롯해 랭킹(9위 대 5위), 상대전적(6승 7패), 올해 전적(8승 3패 대 14승 1패) 등 모든 면에서 박9단에 뒤졌지만 보란 듯 승리하며 국내 여섯 번째 십단 반열에 오르게 됐다.

원익배 십단전의 독특한 방식인 차등시드제로 열린 이 대회의 본선 토너먼트는 56강이 모여 피라미드 토너먼트를 벌였으며, 결승3번기를 통해 강동윤 9단을 최종 우승자로 가려냈다.

경향신문사와 바둑TV가 공동주최하고 (주)원익, (주)원익 IPS,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 후원한 제8기 원익배 십단전은 총규모 4억 5,000만원, 우승상금은 5,000만원, 준우승상금은 2,0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졌다.



마인드레이 초음파기기 한국에서도 성공시대!

초음파기기 글로벌 브랜드 마인드레이

DC-3, DC-T6, DC-8

잇따라 출시

작년 하반기부터 마인드레이(Mindray Medical) 초음파기기가 한국시장에 선보였다. 의료기기 유통분야에서 30년의 업력을 지닌 (주)원익과 한국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작년 하반기에 첫 출시한 마인드레이 DC-3를 필두로 DC-T6, 최근에 선보인 DC-8까지 세가지 제품이 모두 호평을 받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개원가에 이미 50여대 이상이 보급되었고, 최근 출시한 DC-8은 하이엔드급 초음파 기기로서 전문병원 및 건진센터 등으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급 초음파기기와 포터블 제품도 내놓아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인드레이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고기능을 구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초음파 전문 브랜드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시장규모는

2011년도 기준 약 808억 원으로

3년간 2.6%성장했고

2015년에는 8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은 예상하고 있다.

국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성장의 한계성을 보이며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마인드레이는 2006년 뉴욕증시(NYSE)에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이 약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이다. 환자모니터링 기기 분야에서 GE와 필립스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9개의 글로벌 지사를 운영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R&D에 재투자하고 중국에 3곳, 미국에 2곳, 스웨덴 1곳에 글로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1400여명의 연구개발인력이 지속적인 제품혁신을 이루고 있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주목해야 할 메디칼 글로벌 컴퍼니”로 선정한 바 있으며, 같은해에 초음파영상진단기기 부문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초음파진단 기기시장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혼전을 펼치고 있다. 새롭게 도전장을 낸 마인드레이의 대표적인 초음파 기기들을 살펴본다.

초음파기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준종합병원과 건진센터를 겨냥한
DC-8



마인드레이 DC-8은 3D 기반의 프리미엄 초음파장비 기술을 적용하여 심장, 복부, 근골격, 유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태아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형 여부, 태아가 자리잡고 있는 위치와 움직임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확인함으로써 태아기형 등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태아의 심장박동 및 뇌 등 해부학적인 정보들의 처리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측정값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해상도 높은 접이식 19인치 LCD 모니터와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한 제어판 및 터치패널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돕고있다. 저장된 이미

지나 영상을 다시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도 활용도가 높다. 고화질 영상과 고기능을 구현한 초음파 기기들이 검사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는 요즘, 전문병원과 건진센터들의 장비 업그레이드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마인드레이 DC-8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과 및 근골격계의
정확한 진단
DC-T6

마인드레이 DC-T6은 복부 및 갑상선, 심장초음파 진단에 뛰어난 영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품인 고감도 리니어 프로브(선형 초음파



탐촉자)를 장착하여 감상선 및 근골격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 제품이다.

뛰어난 영상을 위해 첨단 변환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고가 장비에서만 구현되던 8채널 초음파, 장기 깊숙한 부위까지 고감도 고해상 표시가 가능한 기능(Phase Shift THI)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배터리를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어 콘솔타입에서 2시간 정도 구현되는 점도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여준다. 진료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한 키패널, 이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개원가의 니즈에 맞게

가격대비 효율적인 초음파기기

DC-3

마인드레이 DC-3는 접이식 15인치 TFT 와이드 모니터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어판을 적용하여 진료공간 효율성이 높다. 또한 아이터치(i-touch), 큐클릭(Q-Click), 아이스테이션(i-station)기능을 장착하여 빠르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아이터치기능은 이미지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큐클릭 기능은 매개변수 조절기능을 통해 빠른 측정값을 제시해준다. 아이스테이션은 환자들의 초음파 진료이미지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편리한 진단환경을 제공하는 마인드레이 DC-3는 고기능을 구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초음파 의료기기 브랜드인 마인드레이의 첫번째 국내 출시 제품으로서 보급형 진단초음파 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를 우선 급여화하고 이를 기점으로 매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원익의 도전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장원동력을 이룬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주)원익은 보급형 기기에서 프리미엄 기기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각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기술력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또한, (주)원익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 국내 최고의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위치 선점을 꾀하며 신성장원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SECTION 02 | 疏通

34 **Wonik Dream Team** (주)원익큐엔씨 품질관리팀 조봉현 팀장과 팀원들



38 **Employee Training** (주)원익아이피에스 승진자 교육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품질과 관계된 모든 것, 우리가 관리한다

한 제품을 생산할 때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지만, 마지막 품질관리의 단계는 제품 출고 전 거쳐야 하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단 하나의 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갈 경우 그 이미지는 고스란히 회사에 돌아오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주)원익큐엔씨 품질관리팀 조봉현 팀장과 팀원들은 마지막 관문을 지킨다는 각오로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다



검사에서 포장까지

제품의 품질관리는 우리가 책임진다

품질관리팀은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단계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품질관리팀의 인원은 모두 13명. 참고로 품질경영본부는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 품질혁신팀으로 이루어져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인원수에서 살펴볼 수 있듯 21명의 품질경영본부 인원 중 품질관리팀에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고 그만큼 업무가 다양하고 필요한 일손도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조봉현 팀장은 “품질관리팀은 생산된 제품의 검사, 세척, 포장 등 하드웨어적인 업무 외 자재 입고부터 최종 출하까지 전사적인 품질을 Monitoring 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업무를 소개했다. (주)원익큐엔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선반, 기계가공, 벤치 등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품질관리팀의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생산주기가 겹칠 때면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힘든 부분도 있지만 품질관리팀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은 곧 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도입

품질관리팀은 보다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품질관리’가 단순히 최종 검사단계에서 불량품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량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를 하는 등의 사전 품질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품질관리팀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단순한 ‘검사원’이 아닌 제품의 생산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원(QC)’이 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조봉현 팀장은 “현재 제품의 문제점을 피드백 받고 이를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레슨’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면서 “예전과 달리 원포인트레슨은 사후 회의를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반복된 실수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어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과 검사의 사이에서 올 수 있는 팀간의 기준차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서로 협력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훗날 생길 수 있는 불량 발생률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생된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 어느 작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리스크 레이더’ 활동을 통해 각 팀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유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상호 협조를 통한 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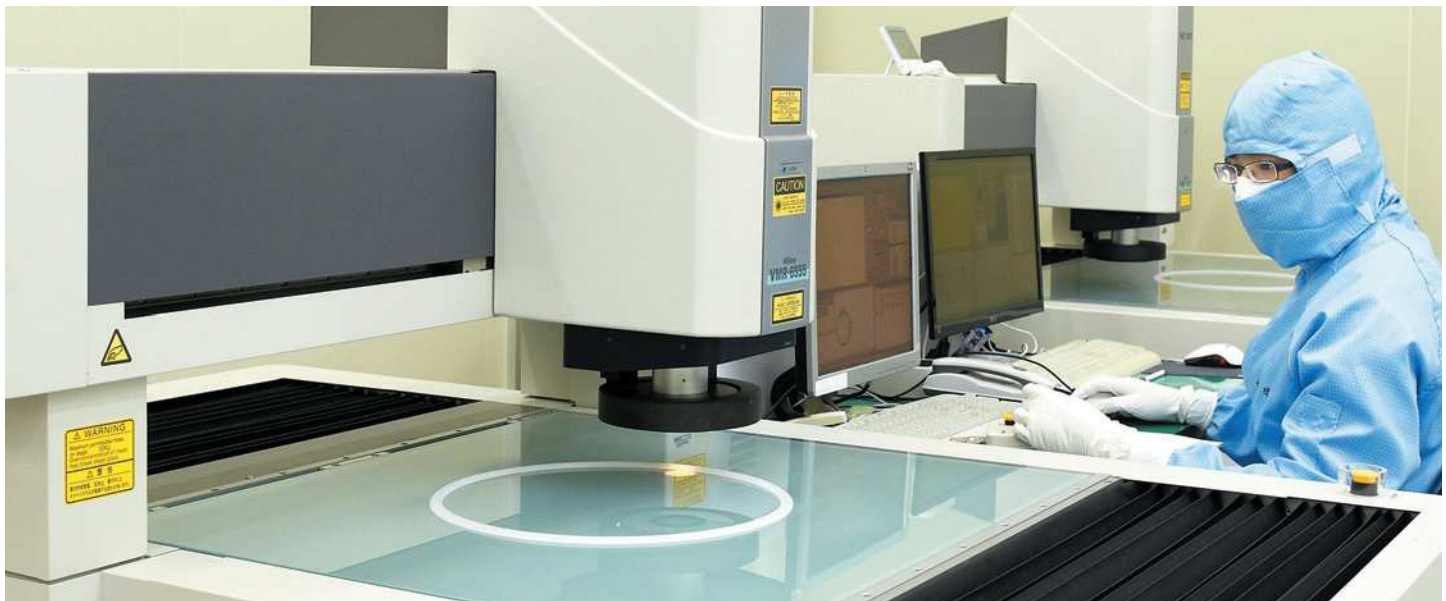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다 나은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질혁신팀 황의진 팀장은 “두 가지 시스템은 작년부터 시작된 QDM(Quality Data Management) 시스템과 더불어 품질관리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한 품질개선 활동”이라면서 “QDM으로 불량률은 작년에 재작년대비 80%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리스크 레이더 시스템으로 불량률을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품질경영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끊임없는 도전하고 시도한다**

품질관리팀은 최근 기계가공 제품이 많아지면서 기계가공 제품관리를 위해 별도팀을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등 변화에 맞춰 품질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바쁘더라도 제품 하나하나 세심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품질관리팀의 업무는 바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품질관리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실현한다



진행된다고 한다. 품질관리팀 광기용 과장은 “평균 근무연수가 7-8년 이상되는 숙련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업무는 어느 때보다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조봉현 팀장은 “현재 품질관리팀은 작년에 ‘QDM 시스템’ 도입에 이어 올해 ‘원포인트레슨’ 과 ‘리스크 레이더’ 를 도입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올해 팀의 목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최근 기계가공 파트가 분리됐는데, 당분간 시일이 걸리겠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경영본부 최종건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영역이 과거 단순한 검사, 포장, 세척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선행 품질관리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며 품질경영 본부는 이제 고객으로부터의 회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전사적 시스템개선을 통한 경영 품질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품질보증팀과 품질혁신팀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등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팀의 특성상 조용한 분위기 때문인지 다 함께 모일 기회가 없었다는 품질관리팀. 조봉현 팀장을 비롯하여 광기용 과장은 팀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같이 모이는 기회를 가지려고 구상 중에 있다. 비록 바쁜 일상이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을 챙기는 마음은 어느 부서보다도 강하다고 자부하는 품질관리팀은 앞으로도 (주)원익큐엔씨 최고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도와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주)원익아이피에스형 인재를 위한, 신입 승진·진급자 교육이 실시됐다

강의를 듣는 김 부장의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팀장님께서 오늘은 강사님이 되셔서 과장의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신다.

스파게티 면 쌓기 1등을 한 오~대리 조의 다섯 대리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묻어난다.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경동인재개발원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의 신입 승진, 승급자 교육이 진행됐다. 신입 부장, 과장, 대리 총 87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총 3차수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리더로서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각 팀의 리더로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기 위해 잠깐이지만 현업을 떠나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배우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굳은 결심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은 직급별로 WIPL(WONIK IPS Performance Leader) 부장과정, WIRL(WONIK IPS Relation Leader)과장 과정, WITL(WONIK IPS Task Leader) 대리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직급별로 가져야할 역할과 목표설정 및 관리방법을 비롯하여 의사소통 방법, 직원육성, 기업문화 핵심가치 등 총 6개의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졌다.

작년과 달리 금년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기획 시 리더십 역량 개발에 2012년 진행됐던 '직무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강사를 선정하고 기획하여 원익아이피에스형 리더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년도 교육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커리큘럼은 '기업문화 핵심가치 전파교육'이었다. 핵심가치에 대한 리더들의 정확한 이해 및 내재화를 위해 약 3시간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직원들의 수용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원익에서 진행한 '기업문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이번 승진자 교육에 참가한 재무팀 장성민 대리는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일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잘 풀어갈 수 있었다"며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잇기 쉬운 부분을 교육동안 많이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WONIK IPS Performance Leader



장 대리는 “기존에는 목적이 불확실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면 이제는 대리로서 일선과 현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또 한명의 반도체 연구소 개발 1팀의 신현철 대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목표설정과 및 관리’ 였다”고 얘기했다. “사원이자 대리로서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의식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번 승진자 교육을 듣고 난 이후로 예전보다 업무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수월함을 느꼈다”고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 대리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승진자만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가는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될 같은 직급들과 얼굴도 익히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금번 승진자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 인사팀 문인준 사원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원익아이피에스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역량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고 교육방향을 간단히 소개했다. 또한 기존에 짜여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한 모듈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 이번 2013년도 승진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신임대리들은 “5~10년 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주)원익아이피에스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기업만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회사의 Name Value를 키우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싶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지금은 ‘신임’의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주)원익아이피에스가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날 주춧돌이 되어 있을 신임 대리들을 상상하며 앞으로 다가올 이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WONIK IPS Relation Leader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3 | 幸福

42 **Never Ending Change**
W. L. Gore & Associates
고어사의 행복한 경영철학



46 **Zoom In**
(주)원익 탁구 & 문화체험 동호회
춘계탁구대회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네 가지 없는 경영철학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위기가 찾아와도 당연한 도전과 문제를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각기 발휘하여 기업에서 다양한 의견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 고어사는 직원들이 가진 역량을 펼쳐서 기업 내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몇 안 되는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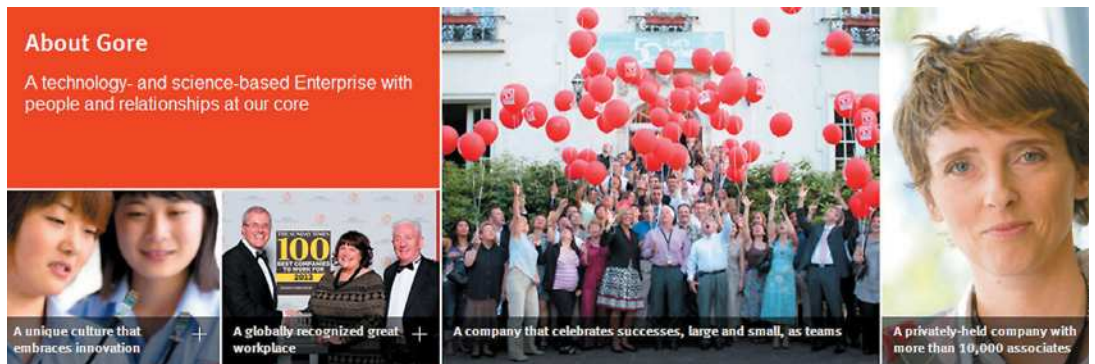
우연한 발견에서
혁신이
시작되다



고어사는 듀퐁에서 화학 엔지니어로 일하던 빌 고어(Bill Gore)에 의해서 1958년 설립되었다. 빌 고어는 듀퐁에서 테프론(Teflon)이라는 브랜드로 화학업계에 잘 알려진 합성수지, PTFE(Polytetrafluoroethylene)를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절연체로 활용하여 케이블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듀퐁에서는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승진을 앞두고 있던 그는 17년간 일하던 듀퐁을 떠나 자신의 집 지하실에 공장을 차리고 고어사를 창업했다.

고어사가 지금처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69년 빌 고어의 장남인 밥 고어(Bob Gore)가 PTFE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이후부터이다. 창업자인 아버지를 이어 1976년부터 2000년까지 CEO를 맡았던 밥 고어는 PTFE를 압출 성형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우연하게 강도는 유지되면서 길이가 열 배나 늘어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린 분자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땀과 같은 공기는 통과하고 비와 같은 물은 막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 소재를 응용하기 시작하면서 제품 혁신에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네 가지 없는
고어사의
혁신



우선 고어사는 보스가 없다. CEO 선출이 언론에 화제가 될 정도다. 공식적으로 직급을 가진 사람은 CEO와 CFO뿐인데, 회사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색에 불과하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들도 동료다. 4개의 사업부는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팀은 아니며 대부분의 업무가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관리자도 없다.

대신 직원 교육을 위해 스폰서 제도를 도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 어떤 직원도 예외가 없이 스폰서를 뒤야 하며 이들은 직원들의 보스가 아닌 멘토와 같은 존재다. 신입사원부터 함께하는 스폰서는 조직 활동의 모든 부분에 걸쳐 조언을 받고 경력이 많은 직원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스폰서를 해야만 한다. 때문에 고어사에 는 보스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역량 육성이 가능하다.

둘째로 정해진 업무와 직책이 없다. 재무, 영업, 개발, 구매 등 고유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나뉘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어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고 난 이후 스스로 자기와 가장 적합한 업무를 찾는다. 또한 고어사는 사람들이 업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찾아가도록 만들 었다.

고어사의 네 번째 CEO 켈리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연한 팀을 기반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서 “최고의 혁신은 다른 관점과 독특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의료사업 부문의 경우 의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동료보다는 관련 지식이 없는 동료들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훨씬 많이 나오고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이야기한다.

셋째로 큰 조직이 없다. 고어사는 한 공장이나 한 조직이 200명에서 250명을 넘어서면 둘로 쪼개어 작게 가져간다. 제품의 매출 성장률이 높아서 공장 규모가 쉽게 커지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공장을 주변에 다시 세워 서 대부분의 공장이나 법인이 200명에서 250명을 넘지 않는다.

이는 창업자인 빌 고어의 ‘쪼개라, 그래야 더 증식할 수 있다(Divide, so we can multiply)’ 라는 철학에서 기인했다. 새로운 공장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한 지붕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명이 넘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을 자세히 아는 상태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창의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장을 쪼개어 자칫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작은 조직’에서 나오는 장점으로 이를 상쇄하고 나아가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됨으로써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고어사에는 보통 조직의 명령체계가 없다. 일반적인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리더십이 존재한다. 고어사는 직급이나 직책이 없지만 동료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동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가 구성되는데 고어사에서 리더 호칭을 달고 있는 비율은 약 10% 정도이다. 즉 리더가 위로부터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CEO인 켈리를 선출할 때도 수백 명의 고어사의 동료들은 자기가 기꺼이 따르고 싶은 사람을 골랐고, 이 과정을 통해 켈리가 CEO로 뽑히게 되었다. 그래서 고어사의 CEO는 전략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고어사**



이처럼 직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어사는 유명 경영잡지 포천으로부터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리스트에 1984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다른 잡지의 ‘일하기 좋은 기업 순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고어사 해외법인 역시 그 나라에서 조사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리스트에 선정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어사는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고어의 매출은 25억 달러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어사가 창업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CEO 테리 켈리(Terri Kelly)는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일은 없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충격을 줄이고 더욱 도약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위기가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이를 직원들의 창의력과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하며 고어사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한 고어사의 경영철학은 동시대를 함께하고 있는 원익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함께 즐기는 탁구 한게임에 스트레스를 풀고 유대감도 키운다

탁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고 즐기기 힘든 스포츠와는 달리 공간의 제약을 가장 덜 받는 스포츠 중 하나다. 적당한 장소와 탁구대, 라켓과 공이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운동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바쁜 현대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주)원익 탁구 & 문화체험 동호회에서는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공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된다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4일, (주)원익 탁구 동호회와 문화체험 동호회의 주최로 춘계탁구대회가 저녁 7시부터 시작되었다. 바쁜 일과 스케줄과 업무 등으로 대회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었지만 탁구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저마다 몸을 풀고 공을 주고받으며 컨디션 조절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탁구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 부장은 “(동호회끼리) 서로 인원이 많이 중복되기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탁구대회를 진행해보기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면서 “남녀 혼합복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할 예정인데 다들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탁구 & 문화체험 동호회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탁구동호회는 2010년도에, 결성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사무실 업무특성상 운동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만한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가볍게 즐기면서도 운동효과가 뛰어난 탁구에 많은 직원들이 호응했고 지금도 20명 정도의 회원들이 매주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동원 부장은 “마침 탁구선수로 활동을 했던 김상조 과장도 있었고, 상무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 덕에 탁구동호회가 결성되었다”고 동호회를 소개했다.

문화체험 동호회는 1년 뒤인 2011년도 말에 결성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동호회장은 이상엽 과장이 맡고 있다. 노범래 총무는 “사람마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것이 다양해서 한 가지로 동호회 성격을 규정짓는 것보단 여러 가지를 함께 즐기고 체험하자는 의미에서 ‘문화체험 동호회’ 라고 이름 짓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은 독서, 영화, 스포츠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임에서 진행할 커리큘럼을 결정한다고 한다. 지난 12월에는 뮤지컬 ‘맨오브라만차’를 회원과 회원가족들이 동반 관람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Zoom In

㈜원익 탁구 & 문화체험 동호회

춘계탁구대회



작은공 하나로 모여 더 큰 우리가 되다



경기 전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대전표와 팀 난이도를 조절해 정리를 마친 후 곧바로 시합이 시작했다.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대회는 총 7개의 복식경기로 진행되었다. 오늘의 우승 후보로 점치는 팀은 '이덕환-임수진' 팀과 '이동원-이태울' 팀이었다. 이덕환 상무는 오래전부터 탁구를 즐겨온 만큼 실력이 상당했고 이동원 부장은 동호회장답게 '우승이 목표' 라고 이야기하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바라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가? '이동원-이태울' 팀은 이승룡-엄재룡 팀의 선전으로 결승진출이 눈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운도 따라줘야하지만, 복식의 특성상 서로의 호흡이 중요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 패배의 안타까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승전이 곧바로 진행됐다. '이승룡-엄재룡' 팀의 강한 저항에도 '이덕환-임수진' 팀은 호흡을 잘 맞춰 대응했고 10여 분간의 공방전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한번의 반란을 꿈꾼 '이승룡-엄재룡' 팀은 안타깝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경기 전 선수들을 응원 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에 참가하게 됐으며 당황해했던 임수진 사원은 우승까지 거머쥐는 행운을 안았다. 임 사원은 "다들 너무 열심히들 하셨다. 응원왔다가 이덕환 상무님과 한 팀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동호회 활동도 고려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내비쳤다.

실력과
승부를 떠나
함께 웃고
함께 즐긴다



이동원 부장은 “실력과 승부를 떠나서 다함께 ‘즐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면서 “30분만 뛰어도 온몸에 땀으로 흥건해지지만 노폐물도 빼내고 온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만족해했다. 한 번 땀 흘리면 일주일도 거뜰하다는 이 부장의 말처럼 오늘 대회에 참가한 이들의 모습도 한결 밝아보였다.

준우승팀이었던 엄재룡 과장은 “파견근무를 하다보니 유대감을 쌓을 기회가 적었는데 탁구와 문화체험 동호회 활동에 모두 참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웃음 지었다. 엄 과장은 “겨울 때 아들과 함께 시작했던 탁구를 시작했는데, 탁구를 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모습들을 알아가는 기회가 됐다”면서 “원익인들끼리도 많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이번 기회에 탁구도 좀 더 배워서 아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싶다는 그의 모습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편, 이날 1등과 2등 상금 수여식에 이은 이날의 포토제닉상에는 박종한 과장이 선정됐다. 박 과장은 대회 내내 다이내믹한 타격을 선보이며 열정적인 경기 모습을 선보여 카메라의 시선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차동익 대표이사도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진행되는 동안 원익인 모두가 웃고 즐기며 행복한 모습이 이어졌다.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기에 앞으로도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면 이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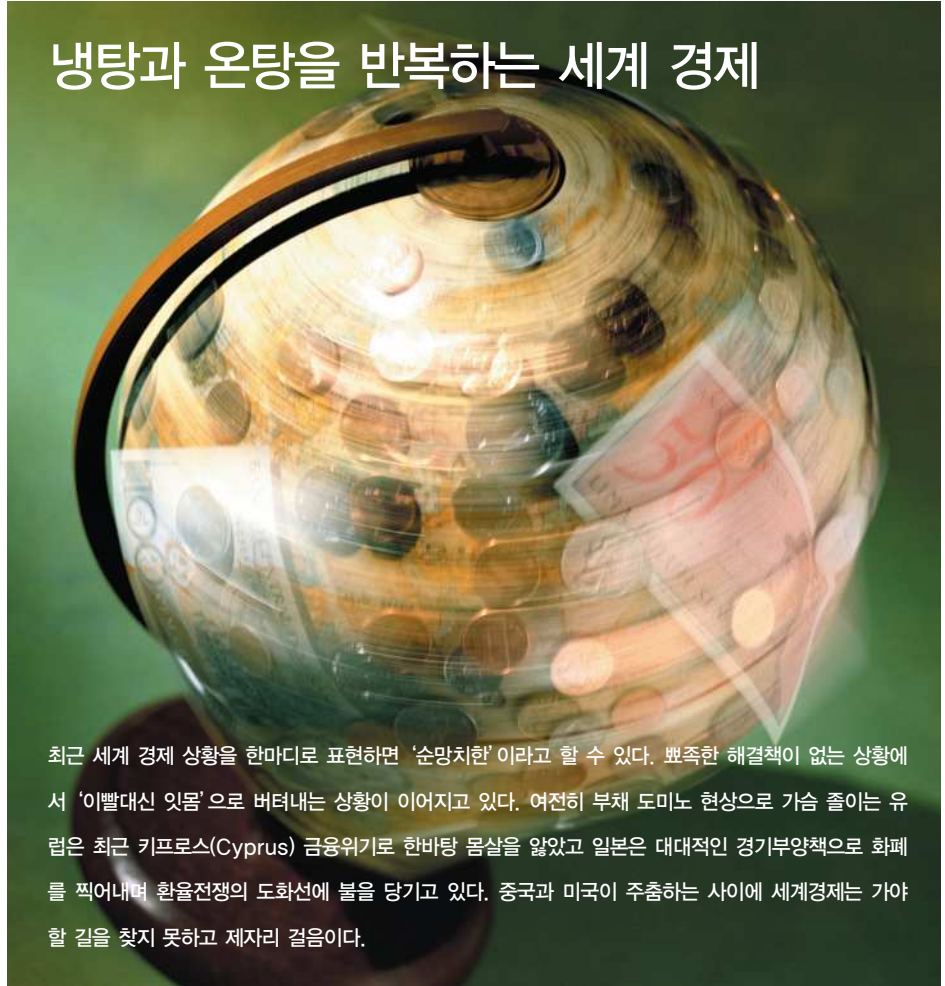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경제이야기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세계 경제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망치한'이라고 할 수 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빨대신 잇몸'으로 버텨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부채 도미노 현상으로 가슴 졸이는 유럽은 최근 키프로스(Cyprus) 금융위기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일본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화폐를 찍어내며 환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세계경제는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근본 해결책이 없는 유럽

이번엔 키프로스2년째 그렉시트(Grexit)에 시달리던 유럽은 올해 들어 동지중해에 자리한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문제로 다시 한 번 키프로스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키프로스 사태는 유럽과 세계 경제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은 지루하게 3월까지 이어지면서 유럽경제 분위기를 침체시켰고 10만 유로 이상 예금주들도 손실을 부담하게 이룬

바 예금주 과세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키프로스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으로 넘어갔지만 유럽 경제위기는 경기회복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주장이 점차 유럽전반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유로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시사하고 있고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유로국가들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세계경제 분위

기는 급속하게 경직되고 있다. 해외언론은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해 북유럽과 남유럽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환율전쟁 부추기는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돈으로 경제살리기에 한창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이후 일본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지난 2월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으로 2년 간 1조4000억 달러를 풀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은행은 이 조치가 물가인상률 2% 달성을 목표로 한 것이며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더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 들어서 엔화는 꾸준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다른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가치는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공세적인 경기부양을 환영한다며 일본의 양적완화를 두둔했던 미국도

최근에는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불거진 환율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선’을 넘는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파른 엔화약세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적완화와 환율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갑게 식어가는 한국경제

해외 경제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작년 말부터 냉탕 분위기다. 이미 2013년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고 금융업계에서는 작년 대비 1.6~2.2%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 경제는 오일쇼크를 맞았던 1975년(1.7%), 신군부의 등장으로 혼란했던 1980년(-0.3%), 외환위기에 빠진 1998년(-3.5%),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4.2%) 등 4차례를 제외하고는 1분기에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최근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환율전쟁에 많은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여기에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 1%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장인들이라면 이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어느 때보다 신경써야할 시기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당장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은 최근 금융권에서 출시한 채형저축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해 가입해 미래를 준비하고 나머지도 현금보유와 시기에 맞게 투자해야할 시기다.

한국은행이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이 심각해질 경우 부양책을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에 맞게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자산에 여유가 없다면 대출을 이용한 투자계획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관망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글 김도웅





공연이야기

배우들의 열정과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다시 우리 곁으로



무대를 향한 배우들의 열정, 그리고 냉정한 쇼비즈니스의 생리를 간명한 스토리에 담아 화려하게 펼치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010년 이후 3년 만에 무대에 다시 펼쳐진다. 브로드웨이에서 독설로 악명이 높인 뮤지컬 연출가, 한때 잘나갔던 여배우, 스타의 꿈을 품고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코러스걸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정통 뮤지컬이다. 2009년, 2010년에 이미 전석 매회의 흥행을 올리고 일일 평균 매출 1억여 원을 돌파했던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관객들에게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최상의 공연 퀄리티를 보장하는 검증된 막강 스타 캐스팅

2013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캐스팅은 베테랑 배우로 가득차 어떤 배우로 예매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악명 높은 카리스마 연출가 '줄리안 마쉬'역에는 '박상원'과 '남경주'가, 과거 유명세를 떨쳤던 뮤지컬 여배우 '도로시 브룩'역에는 '박해미', '홍지민', '김영주'가 캐스팅되어 다양한 버전의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선사한다. 또한 여주인공 '페기 소여' 역에는 실력과 신인 '정단영', '전예지'를 새롭게 캐스팅해 작품에 신선함을 더했다. 어떤 캐스팅을 선택해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뮤지컬의 스테디셀러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흥행은 음악과 안무가 정통 뮤지컬의 매력 때문이다. 스윙과 그루브가 넘치는 재즈 풍의 노래, 공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백여 개의 발, 눈 앞에서 생생하게 연출되는 경쾌한 탭 리듬의 군무는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관객 뿐 아니라 〈브로드웨이 42번가〉를 몇 번이고 감상했던 관객들마저도 몰입하게 하는 흡인력이 있다.



브로드웨이의 역사를 담은 정통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혁명과 함께 태어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브로드웨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뉴욕 브로드웨이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사실적인 세트, 화려한 의상과 신나는 탭댄스가 브로드웨이의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전한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등장인물이 낮은 위치에서 꿈을 노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30년 대공황기에 무명의 코러스 길은 우여곡절 끝에 브로드웨이 스타로 성장한다. 작품은 관객들에게 암울한 상황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TIP 공연정보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기간 : 2013년 5월 11일(토)~6월 30일(일)
장소 : 디큐브아트센터
시간 : 화, 목, 금 8시 1회
수 3시 1회
토 3시, 7시
일 2시, 6시 (월 공연 없음)
리닝타임 : 15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홈페이지 : www.42ndstreet.co.kr
공연문의 : 1588-0688
(CJ E&M 예매전용번호)





전시이야기



영화 속 연출된 장면들을 속에서 현대미술과의 관계와 다양성을 찾는 시간



2000년대 현대미술 작품 중 영화적 연출을 보여 주는 국내외 작가 8인의 작품을 통해 영화와 미술과의 영향 관계를 조명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재고하는 『미장센-연출된 장면들』展이 3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삼성미술관 Leeum에서 개최된다.

‘미장센’은 원래 연극무대의 장면연출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영화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시각적인 구성요소를 통칭하는 넓은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런 연극이나 영화 속 장면연출은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서술하는 회화의 구성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다. 미장센의 영화적인 장면연출은 또한 현대미술에서 일상과 무의식을 탐구하거나, 미술과 영화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전시는 이러한 영화적인 도구를 활용한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에서 장면연출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도구로 미장센은 대사나 편집이 없이도 하나의 장면 속에 풍성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인물의 몸짓이나 눈빛, 자세와 동선들은 그 자체로 수많은 내용



을 전달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의 배경을 채우는 조명, 세트와 소품들은 전체 분위기와 줄거리를 지배하여 작품전체의 톤을 결정한다. 화폭에 등장하는 모든 세부가 숨겨진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화면 안에서 단순한 동작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평범한 사물도 도상학적 해석의 여지들을 가질 수 있다.

대사보다 음향에 의지하는 영상작품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인물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며, 사진으로 연출한 장면들은 특정한 소설이나 그림, 사진과 영화 원작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종의 원형적인 도상으로 관객을 이끈다. 오늘날 작가들은 현대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인 영화 미장센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영화는 대규모 자본과 다양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현대미술 작품들은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여 훨씬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 전시에 등장하는 연출된 작품들은 복잡한 인간 감정을 드러내는 서술구조를 통해 공감할 만한 내러



티브를 보여 준다. 서양영화 속 장면을 재구성한 영상에서부터 영화스틸 사진같이 연출한 구성사진들, 세트 영상을 화면에 담아 낸 설치까지, 정교한 연출이 두드러지는 현대미술의 특징을 영화속 장면 같은 매력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회 속 작은 이벤트

01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Ready Action
레디 액션 ~

미장센의 중요한 개념인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을 어린이가 직접 작품의 일부분이 되어 구성해 본다. 자신의 이미지가 들어간 영화 속 장면을 대형 스크린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볼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다.

교육장소 : 지하 2층, Kids & Family 워크숍룸
대상 : 어린이와 일반 관람객
참가비 : 무료

02 미장센
영화상영

전시기간동안 매주 주말에 리움 강당에서 영화 2편이 연속 상영 됩니다.

시간 : 매주 토, 일 10:30~18:00
상영영화 : AES+F - 트리말키오의 연희 (러닝타임 1시간 8분)
양 푸통 - 낯선 천국 (러닝타임 1시간 16분)

미장센(MISE-EN-SCENE)
연출된 장면들

전시기간 : 2013. 3. 28(목)~6. 2(일)
장소 : 삼성미술관 Leeum
시간 : 10:30~18:00
(월요일 휴관, 오후 5시 매표마감)
관람요금 : 일반 7,000원, 초중고생 4,000원
문의 : 02-2014-6900
홈페이지 : www.leeum.org





건강이야기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복부와 골반, 엉덩이 대퇴부, 척추 주변에 위치한 근육이 있는데 이를 코어근육(Core Muscle)이라고 부른다.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척추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근육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내 몸을 보호할 코어운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코어운동으로 내 척추를 보호하자

코어 근육은 척추 안정화 역할을 하여 인체가 움직임을 시작할 때 척추가 고정되어 있어 동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코어 근육의 발달은 곧 운동능력의 발달과 직결된다. 또한 코어근육을 강화하면 자세교정도 가능하다. 척추와 골반의 뒤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고 관절건강을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코어운동(core exercise)을 한 자세에 1분씩, 매일 3분정도 꾸준히 하면 몸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다. 초보자는 30초 정도가 적당하다.



+ 플랭크

1.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2.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상태로 팔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한다.
 3. 머리와 몸을 일직선상에 맞추고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잡아당긴다.
 4. 자세가 익숙해지면 다리를 한 쪽씩 올리는 동작으로 실행한다.
- ★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 운동에 핵심이다.
허리와 골반의 힘을 기를 수 있다.



+ 사이드 플랭크

1. 바닥에 팔꿈치 아랫부분을 대고 옆을 눕는다.
 2.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한다.
 3. 바닥에 닿은 팔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위로 들어올린다.
- ★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 운동에 핵심이다.
허리와 골반의 힘을 기를 수 있다.



+ 브릿지

1.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2. 어깨로 몸을 받치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린다.
 3. 무릎부터 가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다리를 펴고 팔꿈치로 상체를 받쳐 올리는 리버스 플랭크 자세로 운동을 실시한다.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원익 고건호
이태율
탁구, 문화 체험 동호회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품질관리팀

신원종합개발(주) 현승훈
최정미

(주)원익아이피에스 문인준

(주)원익머트리얼즈 한권수
이수정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차은주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원익사보 2013년 봄호 원익사 통권 34호

발행인 조용래

발행일 2013년 4월

발행처 원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사보 '원익 사'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의 확실한 솔루션 -
미라드라이



냄새나는 겨땀 제거

miraDry®

A lasting solution for
 excessive underarm sweat



FDA 승인 완료! KFDA 수입허가 완료!

90% Clinically effective

- 💧 Dramatic reduction of underarm sweat
- 💧 Immediate and lasting results
- 💧 Non-invasive
- 💧 Toxin-free
- 💧 Minimal to no downtime
- 💧 Quick in-office procedure